

고구려어에서 조명해본 고구려 역사

도수희
(충남대학교)

1

1.1. 우리는 한(韓)겨레이다. 한겨레의 유구한 역사 속에는 한국어의 오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언어사 속에 겨레의 얼이 함축(含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문제를 언어가 풀어 주기도하고 반대로 언어사적인 문제를 역사가 풀어 주기도 한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매체가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이전 시대를 선사 시대라 한다. 이처럼 언어기록은 역사 시대를 열어준 모체(母體)이었다. 따라서 한 민족의 언어사로 그 민족의 역사를 조명하면 제기된 문제가 명확하게 풀릴 수 있다.

한(韓)겨레의 유구한 역사 중에 고대 남 만주 일대와 한반도에 고구려·백제·신라·가라의 4국 시대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史實)이다. 당시의 이 네 나라는 한(韓)겨레이었다. 한겨레이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 할 나위도 없이 네 나라 말의 상관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나라 말의 동질성 여부(與否)가 판가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역사적인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폭넓은 전문지식이 다각도로 동원되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언어적 접근만이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된 고구려사의 구명(究明)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고구려어를 논증자료로 삼

【Keywords】 linguistic homogeneity, Koguryo, national birth myths, place names, the names of kings, the governmental names, Korea

아 고구려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논의를 아직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어는 고구려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고구려의 언어가 한겨레 속의 다른 세 나라 말과의 비교에서 동질성이 확인된다면 이는 동일 계통의 어족(語族)으로 결속되기 때문에 그 역사도 한(韓)겨레사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와 반대라면 고구려사는 한겨레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이른바 삼국정립(鼎立) 시대의 고구려어·백제어·신라어의 상관성을 비교 고찰하여 동질성 여부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고구려어의 증언으로 고구려사의 소속을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력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그 동안 고구려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외 학계가 한국사로 인식하여 왔다. 그 증거가 우리의 정사서(正史書)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청사(靑史)인 두 역사책에 삼국 중 한 나라의 자리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 삼국정립 시대의 역사에서 어느 한 나라의 역사도 빼거나 더 할 수가 없다. 서로 묶여 있는 삼신 동체(三身同體)이기 때문이다. 만일 삼국 시대의 역사에서 고구려사가 빠진다면 한반도에서 ‘3국시대’란 역사적 정체성이 파괴되고 만다. 3국은 동질적인 정립(鼎立)국가이기 때문에 그 중 한 나라가 부정되면 나머지 두 나라도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사와 백제사가 한국사임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이에 결속되어 있는 고구려사도 한국사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난데없이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예속하려는 책동을 일삼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내내 시인하여 오다가(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역사적 근거를 때늦게 발견하였단 말인가? 마치 우리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처럼 중국 사서에서 확고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확답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부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3. 고구려사가 중국사인가 아닌가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역사학적 접근, 역사지리학적 접근, 민족사학적 접근, 민속학적 접근, 인국관계사학적 접근, 언어학적 접근 방법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명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때만이 객관적이고도 타당성이 있는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입체적인 구명의 하나로 이 글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사의 문제를 풀려는데 목적을 둔다. 민족과 언어 그리고 국가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역사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언어사적 논증은 설득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다음의 물음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해답에 도달하기까지 논의하게 된다.

첫째; 건국시조의 탄생신화와 민족이동 방향이 어느 나라의 그것과 동질적인가?

둘째; 지명어의 특징이 어느 나라의 그것과 동질적인가?

셋째; 왕들의 성명 특징이 어느 나라의 그것과 동질적인가?

넷째; 관직명을 비롯한 기타 어휘의 특징이 어느 나라의 그것과 동질적인가?

2

2.1. 애석하게도 신라의 통일은 '2국 통일'이었다. 도수희(2002:83-84, 2003:62-79 등)에서 필자는 신라가 '3국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2국 통일'을 하였던 사실을 논증하였다. 만일 당시에 신라가 고구려의 본토(점령지가 아닌)인 현재의 함경도와 평안도만이라도 흡수 통일하였다더라면 이른바 광활한 고구려 영토 중 그 남계(南界)의 일부만이라도 실질적인 고구려 통일을 하였다고 주장할 만하다. 그러나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와 이를 기반으로 창건한 고려국은 명실공히 후3국을 통일한 셈이다. 고려는 우리가 잃었던 고구려

영토 중 그 일부인 평안도와 함경도를 복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려는 나머지 고구려 영토까지 복원하려고 노심초사하였고, 그래서 국호(國號)도 ‘高句麗’를 줄이어 ‘高(句)麗’라 하였던 것이니 여기에 고구려사를 계승한 증거가 뚜렷이 남아 있다.

만일 당시에 신라가 명실상부한 삼국통일을 하여 고구려 영토의 일부(함경도와 평안도)만이라도 흡수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나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신라가 포기한 함경도·평안도만이라도 다시 찾은 것은 다행이다. 더욱이 고려는 건국초기에 남만주의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인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2. 탄생신화가 “고주몽(고구려)=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신라)=김수로(가라)”와 같이 동일하다. 도수희(1993:136-138)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바섬의 북방에서 비롯되어 말레이시아의 동쪽을 지나 대만해협을 거쳐 곧바로 김해의 앞바다를 향하여 들어오는 해류가 있다. 이 해류는 김해의 앞 바다에서 동남해안과 울릉도의 사이를 경유하여 원산, 신포만을 거쳐 화태(樺太)와 북해도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 해류를 이른바 대마해류(對馬海流)라고 한다. 이 해류가 경유하는 인근 지역에 난생신화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해류가 흐르지 않는 지역에는 난생신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진한의 6촌장 신화가 천손하강신화(天孫下降神話)라면 신라朴씨계의 박혁거세신화(朴赫居世神話), 昔씨계의 석탈해신화(昔脫解神話), 金씨계의 김알지신화(金闕智神話)는 난생신화에 해당한다. 또한 「가락국기」에도 여섯 개의 황금(黃金)알에서 수로왕을 비롯한 6가야 왕이 탄생한 난생신화가 있다. 이 모두가 앞에서 말한 해류가 경유하는 내륙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때 남방에서 비롯된 해류와 난생신화가 무관하지 않다. 이 해류를 타고 민족이 이동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난생신화의 사건들이 모두 남방에서 온 민족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난생신화는 북쪽에서 내려온 천손하강신화와 대립한다. 이른바 단군신화(檀君神話)를 비롯하여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의 육촌장(六村長)의 시조가 탄생한 신화가 곧 천손하강신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락국기」

(『삼국유사』 권2)에 나오는 아홉 추장(酋長) 즉 구간(九干)의 시조들에 대한 신화가 비록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사로국의 육촌장에 대한 신화를 생각하면 이에 유추하여 九干의 시조에 관한 천손하강신화를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남만주에서 한반도에 분포한 신화는 특이하게도 천손하강신화와 난생신화가 겹치는 이중구조의 양상을 보인다.

한편 고구려에도 두 가지의 신화가 겹쳐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몽(朱蒙)의 아버지는 천제자(天帝子)이니 천손하강의 탄생으로 볼 수 있으며, 주몽은 어머니 유희(柳花)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생신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지』(魏志)와 「광개토대왕비문」은 주몽이 북부여에서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동부여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기록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해류의 북상지역과 난생신화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당연히 동해지변(東海之濱)에 위치하였던 동부여가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그 알은 하늘의 해빛을 받아서 잉태하였으니 또한 천손하강신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남만주에서 한반도에 걸쳐 분포한 이중구조의 신화가 어떤 先後의 질서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신화를 만든 민족과 그 민족의 언어를 추적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고구려, 신라, 가라를 망라하여 천손하강신화가 먼저 발생한 뒤에 비로소 난생신화가 발생하였다. 단군신화를 염두에 둘 때 단연코 천손하강신화가 먼저이며 그 분포 역시 북에서 비롯되어 점점 동부와 남부로 확산된 것이라 하겠다. 보다 후대에 발생한 난생신화는 남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북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중구조의 신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국어의 기원 역시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중 기원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이중구조적인 신화의 동질성은 삼국의 정체성이 동일함을 추정케 한다.

2.3. 방위어가 ‘곰~고매(北)⇒뒤(後=北), 남~니매(南)⇒앞(前=南)’와 같이 전의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흔적이다.

일반적으로 방위어(方位語)는 민족의 이동방향에 따라 ‘東西南北’과 ‘前後左右’가 각각 짝을 이루어 동의(同意)로 혼용되었던 사실이 여러 언어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Sanskrit어(고대 인도어)와 Uigur어의 방위어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東=pdźrva(前の 뜻) : 西=apara(後の 뜻), 北=savga(左의 뜻) : 南=daksina(右의 뜻)

東=öng(前の 뜻) : 西=kat(後の 뜻), 北=tös(上の 뜻) : 南=hot(下の 뜻)

와 같이 동쪽이 ‘앞’이고, 서쪽이 ‘뒤’이다. 특히 네팔의 남첸바잘의 셸파족의 ‘셸파’란 이름은 Tibet어 ‘sharpa’에서 유래하였는바 그 의미는 “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따라서 인도족(엄격히 말해 쿠사나족)과 Uigur족은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진 이동하였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두 언어의 방위어가 동쪽이 ‘앞’이고, 서쪽이 ‘뒤’이며 다만 ‘北·南’의 뜻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구려 5부족명(『魏志』와 『後漢書』)의 방위어와 몽고어·만주어의 그것과 대비하여보자.

고구려어	몽고어	만주어
絶奴部(절노부)=北部·後部	北=hoina,umara(後の 뜻)	北=amargi(後の 뜻)
灌奴部(관노부)=南部·前部	南=emüne (前的 뜻)	南=julergi(前的 뜻)
順奴部(순노부)=東部·左部	東= egün, eü (左의 뜻)	東=dergi(上の 뜻)
涓奴部(연노부)=西部·右部	西=baragu (右의 뜻)	西=wargi(下の 뜻)

위와 같이 ‘北=後, 南=前’의 뜻으로 통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말의 방위어에서 본래는 뒤후(後), 앞전(前), 고미북(北), 니마남(南)이었던 것인데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앞(前)이 南의 뜻으로, ‘뒤(後)가 北의 뜻으로 변화한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전진이동(前進移動)이 北⇒南의 방향이었음을 증언하는 바라 하겠다. 이러한 방위인식이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묘터(墓基)나 집터(垆地)까지도 북을 등지는 남향(南向)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게 만들었다.(도수희 1985a:23-44, 1985b:19-37 참고)

3

3.1. 지명은 좀체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은 무형 문화재이다. 가령 영토가 변하고 민족의 이동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토착인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결국에는 그 언어가 다른 언어로 치환(置換)된다 할지라도 그곳의 토착 지명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 나라의 토착 지명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명은 역사에 대한 증거력이 매우 강하다고 역설할 수 있다.

바벨탑의 고장이었던 ‘바빌론’(‘이스타르 여신’의 문장식(2400 B.C)이 발굴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은사자머리(2650-2550 B.C)가 발굴됨)와 ‘우르크’(3.6m높이 석조전(3600B.C)이 잔존함), 아수르 왕국의 ‘아수르’ 등이 현재도 이라크의 지명으로 잔존하여 『구약성서』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한다. 또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역사적 사건의 지명인 ‘엘라’ 골짜기도 3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당시의 사건을 증언한다. 동일 시기의 지명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요르단, 이스라엘’ 등의 옛 지명들이 거의 변함없이 잔존하여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을 말해준다. 또한 하와이 열도의 ‘Hawaii, Waikiki, Ohau, Honolulu’ 등은 본래에 미국영토가 아니었음을 증언한다. 이탈리아에도 로마 제국 이전에 상륙하여 건설한 희랍의 식민 지명이 로마의 지명으로 바뀌지 않고 ‘Cuma, Napoli, Pompei, Sisiry’ 등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어 로마제국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미국의 주명(State Names) 중 1/2이나 되는 인디언 지명도 그 곳이 인디언의 영토이었음을 증명한다. 우리의 경우도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아직도 잔존하여 쓰이는 童巾(통권=鐘)山, 豆漫(두만=萬)江, 雙介(쌍개=孔擘穴)院, 韓合(위하=石), 羅端(라단=七)山, 吡家(빚가), 韓東(오동), 투魯(투루)江 등의 여진어 지명도 여진족이 활거하던 지역이었음을 증언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지명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되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면 이 원리가 고구려의 지명에도 적용되어 마땅하다. 그러면 고구려 지명의 특성은 어떠한가? 과연 그것이 중국어의 특성인가 아니면 한국어의 특성인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고구려사를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정립 시대에 고구려는 남 만주 일대(一帶)와 한반도 북역에,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각각 위치한 독립국가이었음은 일찍이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세 나라는 중국과는 영토상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한(韓)민족의 나라들이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당시의 고구려 지명 속에 들어 있다.

3.2. 『삼국사기』지리4의 끝 부분에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지명이 있다. 이 지명들은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나라 고종 2년(669)에 영국공(英國公) 이적(李勣)이 칙명을 받들어 작성한 32개의 성명(城名)이다. 이 지명은 당나라 이적이 고구려의 마리지(莫離支) 천남생(泉男生)과 상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다. 그 32개 지명 자료(이하 ‘지명자료’)를 『삼국사기』(지리4)에서 옮긴다.

1. 압록수(압록강) 이북의 아직 항복치 아니한 11성(鴨綠水以北未降十一城)
 - ①助利非西(조리비서)>北扶餘城州(북부여성주) ②燕子忽(무자홀)>節城(절성)
 - ③肖巴忽(초파홀)>豐夫城(풍부성) ④仇次忽(구차홀)>新城州(신성주) ⑤波尸忽(파시홀)>桃城(도성)
 - ⑥非達忽(비달홀)>大豆山城(대두산성) ⑦烏列忽(오열홀)>遼東城州(요동성주)
 - ⑧OO(忽)?>屋城州(옥성주) ⑨OO(忽)?>白石城(백석성)
 - ⑩OO(押?)O>多伐嶽州(다벌악주) ⑪安寸忽(안촌홀)>安市城(안시성)
2. 압록수 이북의 항복한 11성(鴨綠水以北已降城十一)
 - ①OO(忽)?>椽崑城(경암성) ②OO(忽)?>木底城(목저성) ③OO(忽)?>藪口城(수구성)
 - ④OO(忽)?>南蘇城(남소성) ⑤甘勿伊忽(감몰이홀)>甘勿主城(감몰주성)
 - ⑥OO(忽)?>麥(麥?)田谷城(능(맥)전곡성) ⑦居尸押(忽?)>(거시압)>心岳城(심악성)
 - ⑧尉那崑城(위나암성)>國內(城?)州(국내주) ⑨肖利波利忽(초리파리홀)>厝夫婁城(설부루성)
 - ⑩骨尸押(忽?)>(골시압)>朽岳城(오악성) ⑪OO(忽)?>

櫟木城(자목성)

3. 압록 이북의 도망한 7성(鴨綠以北逃城七)

①乃勿忽(내물홀)>鉛城(연성) ②O(押忽?)>面岳城(면악성) ③皆尸押忽(개시압홀)>牙岳城(아악성) ④甘弥(押)忽(감미(압)홀)>鶯岳城(취악성) ⑤赤利忽(적리홀)>積利城 ⑥召尸'忽(소시홀)>木銀城(목은성) ⑦加尸達忽(가시달홀)>稗山城(이산성)

4. 압록 이북 공취(攻取)한 3성(鴨綠以北打得城三)

①甲忽(갑홀)>穴城(혈성) ②折忽(절홀)>銀城(은성) ③史忽(사홀)>似城(사성)

위 1.~4.에서 제시한 고구려 지명어의 특징을 고대 한반도에 분포하였던 지명어의 특징과 비교 고찰하여 동질성(상관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3.3. 대응 지명소(지명어 형태소)의 동질적 분포특징

(1) 忽(홀):城(성)

지명자료 1.②~⑦⑩, 2.⑤⑨, 3.①③~⑦, 4.①②③ 등에서 ‘忽:城’의 대응으로 城을 고구려어로 ‘홀’(忽)이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중국 역사서에

溝漚者句麗名城也(‘구루’는 고구려어로 성을 말한다.) <『위서』동이전>
溝漚者句麗城名也(‘구루’는 고구려어로 성의 이름이다.) <『북사』고구려조>

와 같이 고구려를 ‘구루·구려’(溝漚·駒麗)로 적고 그 뜻이 城이라 하였다. 이 ‘구루’가 말모음을 잃고 ‘홀’(忽)(hor<kurø< *kuru)로 변하였다. 압록강 이북 32개 성명 중에 ‘홀’이 18개가 중복하여 나타난다. 고유어의 대응기록이 없는 1.①⑧⑨, 2.①②③④⑥⑦⑧⑩⑪, 3.② 등 13개의 城도 ‘忽’로 불렸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모두 31개(18+13=31)가 ‘홀’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삼국사기』(지리4)의 총153개 지명 중에 나타나는 28개의 忽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모두가 성명(城名)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만일 남 만주 일대에 분포한 고구려의 지명이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다면 忽의 보편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럴 수 없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忽이 백제의 초기 지명인 ‘위례홀(慰禮忽), 미추홀(彌鄒忽)’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매홀’(水城>수원), ‘한홀’(漢忽>漢城>廣州) 등과 같이 중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서남단(전남)의 ‘복홀’(伏忽>寶城)에까지 남하하였다.

(2) 甲比~甲(갑비~갑):穴

4. ①‘갑홀’(甲홀>穴城)과 같이 고구려어 穴의 뜻인 ‘갑(甲)이 현 강화도의 옛 이름 ‘갑비고자’(甲比古次>穴口>江華)의 ‘갑비’로 쓰였다.

(3) 乃勿(내물):鉛

3. ①‘내물홀’(乃勿忽>鉛城)의 내물은 鉛(연)의 뜻이었는데 중세국어 ‘납’에 이어진다. 다음 납석 錫(『훈몽자회』 중 15, 『신증유합』 상25)에서 확인된다.

(4) 達(달):高·山

高·山의 뜻인 ‘달(達)이 고조선의 지명인 ‘아사달(阿斯達>九月山)에 들어 있다. 이 ‘달’이 위 고구려의 32개 성명 중 1.⑥‘비달홀’(非達忽), 3.⑦‘가리달홀’(加尸達忽)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서

- | | | | |
|-----------|----------|-----------|----------|
| ① 達乙城: 高峰 | 達乙斬: 高木根 | ② 息 達: 土山 | 烏斯含達: 兎山 |
| 達 忽: 高城 | | 功木達: 功城 | 夫斯 達: 松山 |
| | | 買尸達: 蒜山 | 所勿 達: 僧山 |

와 같이 ‘達’이 ①와 같은 어두 위치에서는 ‘高’의 뜻으로 쓰였고, 그것이 ②

와 같이 어말위치에 오면 ‘山’의 뜻으로 쓰인 동음이의어 아니면 동음유의어 이었다. 남부 지역에도 ‘달구불(達丘火>대구), 난달아(難等阿~難珍阿>전북 鎭安, 高山), 유달산(儒達山>목포)’과 같이 ‘달’이 드물게나마 나타난다. 아마도 고구려의 명장 濶達(온달)의 ‘달’도 高의 뜻이었을 것이다.

(5) 押(압): 岳·嶽

岳의 뜻인 ‘압(押)도 지명자료 중 2.⑦‘거시압(居尸押), 골시압(骨尸押), 3.③‘개시압홀(皆尸押忽)’ 등에서 발견되는데 한반도의 중부지역에도 ‘부소압(扶蘇押>松岳), 굴어압(屈於押>江陰), 阿珍押: 窮岳 加火押: 唐嶽 등과 같이 분포하였다.

(6) 召尸(소리): 銀

銀의 뜻인 소리홀(召尸忽>木銀城)의 소리는 후대의 ‘쇠’로 이어진다. 여기서 召尸를 ‘소리’로 추독할 수 있는 근거는 古尸(고시)산성(>管(관)산성)의 古尸를 『삼국사기』(열전 김유신전)에서 古利(고리)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밝히었고, 또한 옛 지명에서

斤尸波兮(kirpahye): 文峴 高思葛伊(kari): 冠文

위 ‘斤尸·葛伊’는 ‘文’의 뜻으로 쓰였다. 이 ‘소리’(>쇠)는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다. 도수희(1999:154~158)에서 『삼국유사』(권3)에 나타나는 ‘금교~송교’(金橋~松橋)를 ‘솔다리’로 해석하였다. ‘소리다리’(金橋)가 말모음을 잃고 ‘솔’로 변하여 ‘솔다리’가 형성된 뒤에 그 변형을 훈음이 동일한 솔(松)을 차자하여 ‘솔다리’(松橋)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구려어 ‘소리’(召尸)를 근거로 삼을 경우에 이 추정은 가능성이 있다.(소리>쇠 혹은 소리>솔)

여기서 우리는 ‘소리’의 문제를 푸는데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적의 1예를 고대 중국어에서 들(찾을) 수 있다. 한자 ‘鐵’(철)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기원적 고자(古字)가 ‘鍊’(철)이다. 중국의 『說文解字』(설문해자)를 비롯하여 최남선(1915)의 『신자전』(2-26)에 “鍊은 鐵의 古字”라 하였다. 이 단어(鍊)의

구조는 ‘金+夷’이다. 이 단어를 근거로 ‘鐵’(철)의 생산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夷’자로 보아 그것은 東夷族(동이족)으로부터 수입된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鐵’thiet은 동이족어(부여어)를 수입한 차용어라 하겠다.(都重萬1998:59~60참고) 다음에서 鏤(thiet)>鐵(thie)의 발달과정을 한국어의 그것과 비교 고찰하면 더욱 분명하여질 것이다.

上古音	中古音	近代音	現代音	俗音
鏤 t'iet (T)				털thy r(訓·類合)
t'iet (K)	t'ie (K)			
t'et (Ch)	t'igt (Ch)			
thiet (L)	thiet (L)	thie (L)	thie(L)	

(T=董同龢, K=高本漢, Ch=周法高, L=李珍華·周長楫, 訓=訓蒙字會·新增類合)

위 자료에서 상고음을 기준으로 속음(한국한자음)과 비교하면 thiet:thyər로 대비된다. 어말에서 중국 고대음 ‘t’과 속음 ‘r’이 규칙적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t>r’규칙을 근거로 위 대비형을 거의 같은 음형(어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이족(부여)어로부터 차용한 thiet(鐵)을 역수입한 것이 속음 털thyər(鐵이)라 하겠다. 이 ‘thyər’은 고구려어 ‘sori’(>sorø~soøy)와의 대비에서 비슷한 꼴을 보인다. 따라서 ‘thyər’은 현대어 ‘쇠’(<só<soy<sori)의 본래 모습(sori)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 제16대 故國原王(331-370)의 이름이 ‘사유’(斯由)~‘쇠’(釧)이다. 재위 40년이니 쇠처럼 단단하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 듯하다. 최남선의 新字典(4-56조선속자부)에 ‘釧(쇠)金也쇠’라 풀이하고 있어서 釧를 ‘쇠’로 새길 수 있다. 신라 제25대 眞智王(576-578)의 이름이 ‘사륜~금륜’(舍輪~金輪)이다. 여기서 舍:금의 대응을 근거로 舍를 ‘쇠’로 추독할 수 있다. 따라서 舍(=金)輪을 ‘쇠돌이’로 해독하게 된다. 輪의 옛 새김이 ‘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 인명 중에 ‘소나~금천’(素那~金川)이 있어서 ‘素:金’의 대응으로 위 추독을 가능케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金銀銅鐵水銀’을 ‘쇠’로 통칭한 사실을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도수희 1994:269-271 참고)

(7) 那·奴(나·노):壤·川

壤(地)·川의 뜻인 ‘나’가 고구려어에서 동음이의어였던 사실을 고구려 왕호 및 5부족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첫째 도읍인 졸본(卒本)의 배수로 흐르던 ‘비류나(沸流那)의 별칭이 ‘보술수(普述水)~송양(松壤)’이니 壤·水의 뜻인 ‘나’가 고구려 초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초기의 尉那岩城(위나암성)의 ‘那’도 같은 말이다. ‘나’는 신라 초기에 ‘사라·서라(斯羅·徐羅)와 같이 ‘라’로 나타나며, 가라국(加羅國)의 ‘라’도 동일어로 추정할 수 있다. 川의 뜻인 ‘나’도 신라 인명 ‘소나(素那=金川), 심나(沈那=煌川)에 들어 있다. 특히 고구려의 서울 平壤(평양)의 별칭이 ‘평나(平那)인바 이는 고구려어로 ‘벌나’이었다. 그런데 동일한 서울 이름이 신라의 ‘서라벌’에서 확인된다. 여기 ‘나·라’는 땅(壤·地)의 뜻이니 ‘서+라벌’의 ‘라벌’과 ‘벌나’를 비교할 때 어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 ‘나’에서 ‘나라’가 파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음이의어 ‘나(那)가 또한 중부지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분포하였다.

奴(nuo)·內(nai):壤(따)의 대응 예를 다음에 열거한다.

- | | | |
|-----------|---------|---------|
| ① 骨衣奴: 荒壤 | 於斯內: 斧壤 | 仍伐奴: 穀壤 |
| 今勿奴: 黑壤 | 仍斤內: 槐壤 | 金惱: 休壤 |

여기 ‘奴·內·惱’와 ‘壤’이 규칙적인 대응을 보인다. 고구려의 왕호 중에 ‘양·천(壤:川)의 대응이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 | | |
|---------------------|----------------|
| (A) | (B) |
| ① 故國川王 或云國壤王 (제 9대) | ① 國川 亦曰國壤 乃葬地名 |

- | | |
|---------------------|-------------------|
| ② 東川王 或云東襄王 (제 11대) | ② 東川王 ~ □ |
| ③ 中川王 或云中壤王 (제 12대) | ③ 中川王 ~ □ |
| ④ 西川王 或云西壤王 (제 13대) | ④ 西川王 ~ □ |
| ⑤ 美川王 一云好壤王 (제 14대) | ⑤ 美川王一云好壤王 |
| ⑥ □ ~ 故國壤王 (제 18대) | ⑥ □ ~ 國壤王 |
| (『삼국사기』 본기 제4.5) | (『삼국유사』 권1 왕력 제1) |

위 (A)①~⑤와 (B)①⑤의 ‘川: 壤’을 근거로 (B)②③④⑥의 □을 ‘壤’으로 채울 수 있고, 반대로 (A)(B)⑥의 □은 ‘川’으로 메꿀 수 있다. 그리고 왕호의 ‘壤·川’을 고구려어로 ‘노·내·뇌·냐’(奴內惱那)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高句麗...有五族 有洵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후한서』 권 85 동이전)
- ② 二十年 春三月 遣貫那部沛者達賈伐藻那 虜其王 (『삼국사기』 고구려 대조대왕조)
- 二十二年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 (상동)
- 八十年 秋七月 ... 貫那, 恒那, 沸流那(상동)

위 ①의 ‘奴’는 ‘壤’의 새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①에서 ‘奴:壤’을 재구하였기 때문이다. 위 ②의 貫那部, 恒那部 등의 ‘那’ 역시 ‘壤’의 새김으로 볼 수 있다. 위의 ①과 같이 ‘部’가 접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藻那, 朱那’의 ‘那’는 ‘川’과 ‘壤’ 어느 것의 새김에 해당할지 성급히 속단할 수 없다. 沸流那의 ‘那’는 ‘沸流水(東明聖王 元年 大武神王 4년)’가 나타나기 때문에 ‘那:水’의 대응으로 ‘川’의 새김일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沸流部, 沸流國이라 적혀 있기도 하고 또한 이것들이 松讓으로 대응 기록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讓’이 ‘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 ‘那’를 ‘壤’의 새김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시 ‘川(水), 壤’의 새김에 해당하는 동음이의어일 가능성이 짙다. 이상의 재구결과에 따라서 위 (A)(B)의 □를 ‘壤.川’으로 채울 수 있다.

平壤:平那,松讓(壤?):沸流那와 金川:素那, 煌川:沈那의 대응을 근거로 왕호의 ‘壤:川’도 고구려어 ‘나’로 불렀던 사실을 재확인한다.

(8) 신라 월성(月城)의 별칭인 ‘재성’(在城)은 ‘견성’(계신성)이다. 이두로 ‘在’를 ‘견’으로 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在如中(견다해) 在等以(견들로) 在以(견으로) 在乙(견을) 在乙良(견을랑) 在隱乙良(견을안) 在旆(견이며) 在亦(견이며) 是白在果(이슌견과) 是白在如中(이슌견다해)

등과 같이 ‘견’이다. 그런데 ‘在隱乙良’과 ‘在乙良’에서 ‘在隱’과 ‘在’를 동일하게 읽는 것을 보면 다른 모든 경우가 ‘ㄴ’표기의 ‘隱’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在’는 ‘겨다’란 새김자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한상인1993). ‘在’의 새김이 후기 중세국어 이후부터 ‘이실’(在) (『광주천자문』6, 『신증유합』 상 25)로 변화했으나 전기 중세국어 이전에는

獨園에겨사(在獨園) (『금강경언해』 상1)
天子 | 이제咸陽의물겨시니라(天子不在陽官) <초간두시 5:50>

와 같이 ‘在’의 훈음이 ‘겨(시)다’이었다. 이와 같은 ‘겨’, ‘견’을 바탕으로 음차표기한 것이

태조 5년 서경(평양)의 재성(견성)을 쌓기 시작하여(在를 방언으로 견(畎)이라 한다.) 무릇 6년만에 완성하였다.(太祖 五年 始築西京在城(在者方言畎也) 凡六年而畢(『고려사』 권82 兵志2 城堡條)

에 나타난 ‘畎’(견)이다. 고려 태조 5년(922)이면 신라의 말기어이며 방언이라 하였으니 고유어에 해당한다. 고대어인 ‘견’(畎)이 이두 ‘견’(在)과 일치하는데 우리의 주목을 끈다.

한편 『삼국사기』 권34에

과사왕 22년(101)에 금성의 동남부에 城을 쌓고 이름을 月城 혹은 在城이라 불렀다.(婆娑 王二十二年 於金城東南築城 號月城 或號在城)

라 적혀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在城’을 발견한다. 이것과 고려 초기의 ‘在城’을 동일어로 보고 이병도(1980:525)에서 ‘견성’이라 해독하였다. 말하자면 ‘임금이 계신 城’(御在城)이란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요컨대 ‘在’의 고려초 방언이 ‘𨾏’(견)인 점과 이것과 이두어의 ‘견’(在)이 정확히 일치하며 이른 시기에 ‘겨.’에 대한 차자 표기에서 ‘在’가 발견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在城’을 嶺城의 뜻인 ‘재성’으로 해독하는 것보다 ‘임금이 계신 城’이란 뜻인 ‘견성’(在城)으로 푸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려 한다.

고구려 평양성의 별칭이 ‘견성’(在城)이니 신라와 같은 말을 썼던 것이다. 이처럼 서울 이름이 똑같고 왕이 ‘계시다’란 말이 똑 같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며 두 나라 말의 친근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줄 수 있다.

(9) 薩(살):靑

마치 오리머리처럼 “강이 푸르다”하여 ‘압록(鴨綠)강’이라 명명한 이 강명을 한역한 것이 ‘청천강(靑川江)이다. 고구려어로 청천강을 ‘살수(薩水)라 하였는데 靑의 뜻인 ‘살’이 현 충북 괴산 청천면(靑川面)의 옛 이름인 ‘살매’(薩買>靑川)에서 발견된다. 을지문덕 장군의 ‘薩水’ 대첩의 ‘살수’는 ‘靑川江’을 이름이니 고구려어로도 靑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가 ‘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有名未詳地分(이름은 있는데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지명들)에 나오는 ‘薩加水’의 ‘薩’도 ‘靑’의 뜻인 고구려의 고유어이었을 것이다. 신라 지명 중에서 ‘率己:淸道, 昔里火:靑驍’의 ‘솔:창’, ‘서(기)리:창’의 대응으로 ‘살=靑’이 발견된다.

(10) 夫斯(부사)·扶蘇(부소): 松

고구려 건국 수도 졸본의 배수(背水)이었던 비류나~보술수~송양(沸流那, 普述水, 松壤)이 ‘보술·松’, ‘나·水·壤’의 대응을 보이므로 ‘보술’이 松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보술’이 백제 칩제 수도 위례홀의 배산인 ‘부사악’(負兒岳)을 비롯하여 ‘부소암’(松嶽>개성), ‘부소산’(현 부여의 扶蘇山) 등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였다. 다음에 그 예를 들 수 있다.

- | | | |
|----------|---------|---------------|
| ①扶蘇押:松岳 | 夫斯達:松山 | 扶蘇山(현 부여의 배산) |
| ②釜山:松村活達 | 負兒岳:三角山 | |

위의 ‘扶蘇·夫斯’는 ‘松’의 뜻이다. ②‘釜·松’은 제2음절이 생략(혹은 탈락)된 ‘夫斯’의 변화형이다. 역시 ②의 ‘負兒’는 ‘慰禮, 彌鄒’와 맞먹는 백제 초기의 지명으로 ‘兒’의 고대음은 ‘*se ~*ze’이었으므로 역시 ‘puze’=松을 뜻하는 가장 이른 형이다.

(11) 於乙(얼~어을):泉

고구려의 ‘막(ㄱ)리지’(莫離支)였던 천개소문(泉蓋蘇文)의 성명이 고대 일본어 ‘이리가수미’로 적혀 있다. 泉을 고구려어로 ‘이리’라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반도의 고대 지명어에서 발견된다. “於乙=泉: 於乙買串=泉井口, 於乙買=泉井, 一利내=星川=銀河水, 이리가수미=泉蓋蘇文” 등에 泉과 대응하는 어휘들을 고유어로 도수희(1965:3-14참고)에서 해석하였다.

(12) 옛 지명 중에 가장 큰 지명은 국명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근원이 되는 국명 ‘부여’(扶餘)가 백제 후기에 발생한 ‘남부여’(南扶餘)에 들어 있고 이를 근거로 본래의 수도명인 ‘소부리’(所夫里)를 신라 경덕왕(757)이 ‘부여’(扶餘)로 고쳤으니 여기에도 그 뿌리가 박혀 있다. 그리고 한국사에 후삼국의 이름으로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명실공히 백제와 고

구려를 이은 나라란 뜻으로 ‘후’(後)자를 접두어로 썼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려의 터전에 다시 건국하였던 고구려를 발견한다. 이 후고구려를 줄이어 국명을 삼은 나라가 바로 고령국이다. 후고구려는 예맥의 근거지 철원에 도읍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으려 하였고 이 나라를 이은 고령국은 고구려의 영토 중 신라가 확보하지 못한 압록강 이남의 함경도와 평안도를 찾아서 옛 고구려 영토의 일부만이라도 복원하였다. 따라서 고령은 국명과 영토를 명실공히 이어받은 고구려의 당연한 후계국이다. 이 후계국의 국호가 세계 만방에 공포되어 이후로 우리의 국호가 ‘코리아(Korea=고려)로 정착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를 승계한 고려사도 한국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고려사가 한국사에 속한 이상 그 전신인 고구려사도 당연히 한국사에 속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발해>후고구려>고려=Korea’와 같이 이어지는 적통성(嫡統性)이 고구려사는 한국사임에 틀림없음을 확증하여 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지명소들의 특성은 중국의 지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반면에 이 특성이 한반도에는 적극적으로 분포하였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이 특성들이 신라와 백제의 지명과 동질성적이라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신라·백제는 지명의 친근성으로 결속되어 있었던 한(韓)민족의 세 나라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나라는 중국과는 영토상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별개의 나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다음 해(669)에 당나라 이적(李勣) 등이 “고구려 제성에 도독부 및 주군(州郡)을 설치하는 건은 마땅히 남생(男生)과 상의 작성하여 주문(奏聞)하라는 칙명(勅命)을 받들었습니다. 안건은 앞에서와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칙서에 “주청(奏請)에 의해서 그 주군(州郡)은 모름지기 (당나라에) 예속케 하여야 하겠으므로 요동도안무사겸우상(遼東道按撫使兼右相) 유인궤(劉仁軌)에게 위임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적당히 분할하여 모두 안동도호부에 예속케 하였다. 그리고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1부, 7주, 51현을 두었다. 중국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제가 망하자 당나라는 백제의 서울이었던 웅진(>공주)에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두었고, 고구려가 망하

자 평양에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었다. 여기 ‘도독부’와 ‘도호부’는 점령국에 대한 ‘식민통치부’에 해당한다. 자기 나라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민지로 삼는 나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없다. 남의 나라를 강제로 병탄(併呑)하고 강점 설치한 기구가 이른바 식민통치부가 아닌가? 따라서 서기 669년(총장 2년)에 당 나라 고종이 이적(李勣)에게 칙명으로 설치한 식민지는 고구려와 백제가 자국(중국) 아닌 타국(한국)이었음을 자백한 셈이다. 여기 고구려와 백제는 동일한 식민지인데 고구려만 중국역사에 해당하고 백제는 아니라고 한다. 백제사가 중국사가 아니라면 고구려사 역시 중국사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4

4.1. 언어 중에서도 성명과 관직명은 역사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역사를 주도한 왕의 성명은 민족의 계통과 역사를 밝히는 길라잡이가 되어 줄 수 있고 관직명 또한 이웃 나라와의 상관성을 가리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만일 고구려 왕의 성명과 관직명이 신라 및 백제의 그것들과 닮은꼴이고 중국의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 고구려사는 자동적으로 한국사에 해당하게 된다. 백제사와 신라사가 틀림없는 한국사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 삼국정립으로 결속되어 있는 고구려사 역시 한국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광개토대왕비문』과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세 나라 왕의 성명과 관직명을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고구려 시조는 그가 세운 나라이름 ‘고구려’에서 ‘高’를 따다가 성을 ‘고’(高)씨로 삼았다. 그러나 이 ‘고’씨는 시조 주몽의 성씨에서 단 1회로 끝났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고구려조)에는 주몽의 본성이 ‘해’씨라고 세주(細注)하였다(本姓解氏也). 이후 왕들의 성씨는 ‘해’(解)씨였다. 따라서 고구려 왕족의 정통적인 성씨는 ‘해’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해’씨는 중국성이 아니었다. 중국의 성씨에는 ‘해’(解)씨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부여왕의 성명에서 발견

되는 ‘해부루, 해모수’(解夫婁, 解慕漱)의 ‘해’씨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가 부여(扶餘)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확증이다. 이 ‘해’는 지금까지 쓰여 온 우리 배달말인 ‘해’(日)와 동일하다. 일본어의 ‘히’(日)도 이 말이 건너간 듯하다. 그러면 ‘해’씨의 어원을 밝혀보자. 「광개토대왕비문」(414)에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북부여 왕 ‘해모수’의 아들이라 명기되어 있다. 이 사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는 건국 후 오래지 않아 동부여를 통합하였으니 고구려사는 곧 부여사의 연장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몽이 부여출신이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그의 본성이 ‘해’씨라 하였다. 후대의 왕성이 ‘대해주류(대무신왕), 해색주(민중왕), 해애루(모본왕), 소해주류(소수림왕)’(제3,4,5,17대)와 같이 ‘해’씨이다. 나머지 왕들은 성씨를 밝히지 않았다. 만일 밝히었다면 모두 ‘해’씨였음이 분명하니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의 성씨는 비록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아들이 ‘해명’(解明), ‘해우’(解憂)이니 이를 근거로 역시 ‘해’씨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근본은 부여에 있음이 확실하다. 더구나 고구려가 후에 동부여를 통합하였으니 부여의 역사를 승계한 나라임이 분명하다. 부여의 다른 지파인 백제도 왕성이 ‘해’씨 또는 ‘부여’씨라 하였다. 그래서 백제의 귀족 중에는 ‘해루, 해충, 해수, 해구’(解婁, 解忠, 解須, 解仇) 등처럼 ‘해’씨가 많다. 백제의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서울을 옮기면서 백제의 뿌리를 찾아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고쳤다. ‘南扶餘’는 “남쪽에 있는 부여”란 뜻으로 백제의 근원이 ‘북부여’(北扶餘)임을 밝힌 새로운 국호이다. 이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역사적인 뿌리가 부여국에 박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햇빛’(日光)의 의미가 삼국의 왕명에 고루 들어 있음도 뜻깊게 새겨볼 일이다. ‘해’에다 어원을 둔 ‘빛’ 또는 ‘해빛’을 소재로 한 왕명이 고구려·백제·신라에서 고루게 작명되었다.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를 신라어로 ‘불궂누리’(밝은누리)라 불렀다. 『삼국유사』는 ‘불궂누리’를 ‘불구내’(弗矩内)로 음차표기하고 그 뜻을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言光明理世也)로 한역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광명’(光明)을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고구려 시조 주몽의 잉태과정에도 ‘햇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와는 그녀를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왔다. 몸을 피해가니 햇빛이 또 따라가 비치었다. 그로 인하여 태기가 있어 닷 되들이 만한 크기의 알을 낳았다.”(金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透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라고 기술한 『삼국사기』의 기사에서 ‘햇빛’(日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도 “본성은 해씨였으나 지금 자기가 천제의 아들이로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는 까닭으로 스스로 高로씨 氏를 삼았다”(本姓解氏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日光而生 故自以高爲氏)라고 한 세주(細注)에도 ‘일광’(日光)이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 시조 이름이 ‘동명’(東明)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유리명’(琉璃明)이다. ‘동명’은 고구려어로 ‘새블 ㄱ’이며, ‘유리명’은 ‘누리블 ㄱ’이다. 두 나라 초기의 왕명에 ‘블 ㄱ’(赫, 明)이 동일하게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어 ‘누리’(유리명왕)이 신라 시조명인 ‘발 ㄱ내(<누리)’의 ‘내’(世)를 비롯하여 제3, 14대 왕 ‘누리’(儒理=世里, 儒禮)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초기 왕명의 동질성 ‘햇빛=블 ㄱ’(赫, 明, 昭, 昌)이 누대로 이어져 고구려의 유리명왕의 태자명 ‘해명’(解明)을 비롯하여 ‘문자명왕’(文咨明)과 ‘명리호왕’(明理好), 신라의 ‘명지왕’(明之=신문왕)과 ‘비지’(>비치)왕(昭知~毗處), 백제의 ‘성명왕’(聖明~明穰)과 ‘창왕’(昌)처럼 후대의 왕명 속에 들어 있다. 신라 시조 ‘블 ㄱ누리’와 고구려 제2대 왕 ‘누리블 ㄱ’를 비교하여 보면 어형성에 참여한 형태소들은 동일한데 참여의 순서만 바뀐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참여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어형성의 형태소와 그 어의가 거의 완벽하리만큼 동일한 어휘가 신라의 시조와 제3대왕, 고구려의 시조와 제2대왕의 이름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구려·백제·신라는 ‘해빛’(日光)을 작명의 소재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리’(世), ‘비류’(沸流國, 沸流江에서 유래), 온조(온세상), ‘주몽·활보’(명사수), ‘뱀보’(뱀처럼 기어다님), ‘거칠부’(荒宗), ‘이사부’(荑宗) 등과 같이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기능과 행동 등을 소재로 작명된 공통점이 있다. 고구려 고국원왕(제16대)의 이름이 쇠(斯由~劉)인데 이것은 신라 진지왕의 이름 쇠돌이(舍輪~金輪)의 ‘쇠’와 같다. 궁예가 창건한 후고구려의 도읍이 ‘쇠벌’(鐵原)이었고 신라의 인명에도 ‘쇠나’(素那=金川)가 있기

때문에 ‘쇠’(金·銀·銅·鐵)이 보편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여왕 ‘해부루’(解夫婁)를 비롯하여 고구려의 ‘해애루, 삽시루, 모두루, 미구루, 해루’(解愛婁, 挿矢婁, 牟頭婁, 味仇婁, 解婁)와 백제의 ‘다루, 괴루, 개루, 근개루’(多婁, 己婁, 蓋婁, 近蓋婁) 등에서 돌림자로 추정되는 ‘루’(婁)를 발견한다. 고구려 왕명 중에 대무신(大武神)~대해주류(大解朱留)왕, 대조대(大祖大)왕, 차대(次大)왕, 신대(新大)왕 등처럼 ‘大’를 관형어로 썼다. 또한 관직명에도 대가(大加), 고추대가(古鄒大加), 대대로(大對廬)와 같이 ‘大’를 썼다. 백제의 경우는 건길지(健吉支), 근귀수(近貴首), 근개루(近蓋婁)처럼 ‘건~근’(大)으로 음차 표기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관직명에 대사(大舍) : 한사(韓舍), 대나마(大奈麻) : 한나마(韓奈麻)의 대응 표기가 있어서 고유어 ‘한’이 大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고구려어도 大의 뜻으로 ‘건~근~한’을 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발해국의 시조 대조영(大祚榮)의 성 ‘大’씨도 ‘한’씨로 ‘한조영’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씨를 ‘한’씨로 삼았던 것은 고구려 왕명 중에서 ‘한’(大)을 취하였음이 틀림없다. 이 한조영의 ‘한’씨는 그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과시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 ‘한, 근(>근)’(大)이 그대로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세 나라는 왕명을 우리의 고유어로 부른 공통점이 있다. 이는 중국과 극명하게 다른 세 나라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4.2. 관직명이 백제·신라와 닮은꼴이었지만 중국과는 달랐다. 백제어로 왕을 어라하(於羅瑕), 건길지(健吉支)라 존칭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어로는 ‘개~해’(諧)라 불렀다. 중국 『위서』에 유리명왕이 ‘노려해’(奴閼諧)로 적혀 있어서 알 수 있다. 이 ‘해’(諧)는 백제어 ‘어라하’의 ‘하’와 일치한다. 『삼국사기』(지리2)의 지명에서도 왕의 뜻인 ‘개’(皆)가 여럿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개지’(皆次=王岐), ‘개맞이’(皆伯=王迎~王逢) 등의 ‘개’가 같은 말이다. 이 ‘개’는 고구려의 ‘상가, 고추가, 소노가’(相加, 古鄒加, 消奴加) 등과 같이 관직명에 접미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이 ‘가, 하’가 신라어의 ‘거서간, 마립간, 각간’(居西干, 麻立干, 角干)의 ‘간’(干)과 일치한다. 서로가 받침 ‘ㄴ’의 유무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와 백제의 ‘건길지’(健吉支)에서

‘지’(支)가 일치한다. 또한 전부 어소인 고구려의 ‘막리’(莫離)와 신라의 ‘마립’(麻立)도 각각 ‘ㄱ’과 ‘ㅂ’받침을 무시하면 ‘마리’로 일치한다. 다만 고구려에서 쓰인 관직명 접미사 ‘가’, ‘지’는 백제에서는 오로지 왕칭어로만 쓰일 뿐이었다. 이런 왕칭어의 동질성은 세 나라 역사가 한(韓)민족사에 귀일(歸一)함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

삼국의 전기 시대에 고구려·신라·백제의 최고 관직은 ‘대보, 좌보, 우보’(大輔, 左輔, 右輔) 등과 같이 ‘보’를 사용하였다. 이 ‘보’가 후대에는 고구려의 상부(相夫=봉상왕), 구부(丘夫=소수림왕), 중외대부(中畏大夫), 명림답부(明臨答夫) 등과 같이 ‘부’(夫)로 변하였다. 이것은 신라어에서도 심맥부(深麥夫=진흥왕), 이사부(異斯夫=계림왕), 거칠부(居柒夫=해동명왕) 등과 같이 ‘부’로 변하였다. 이 ‘부’는 ‘모(宗)’의 뜻에 해당하는 고유어이었다. 이것은 바보(溍達), 활보(弓伏~弓卜=장보고), 뱀보(蛇伏) 등의 ‘보’로도 변하였다. 이 ‘보/부’는 흥부, 놀부, 똥보, 곰보, 울보, 느림보 등처럼 인칭접미사로 현대어에까지 이어져 쓰이고 있다.

우리말의 존칭 접미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지’(智, 支)이다. 이것은 ‘신지(臣智), 근지(近支), 견지(遣支), 진지(秦支), 한지(旱支), 건길지(健吉支)’와 같이 마한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 ‘지’는 보다 이른 시기의 고조선어 ‘괴즈’(箕子), 괴준(箕準)의 ‘즈/쥬(ㄴ)’에까지 소급된다. 이것이 고구려어 ‘막리지, 어지지’로 쓰였고, 백제어 ‘건길지, 개지’(皆次)로 쓰였고 신라어 ‘박알지(朴闕智), 김알지, 누리지(世里智), 거칠부지’로 쓰였고, 가라어 ‘좌지(坐知), 탈지(脫知), 도설지(道設智)’ 등으로 쓰였다. 그 쓰인 빈도로 보면 고구려와 백제는 소극적인 편이었고 신라와 가라는 보다 적극적이었다. 고구려어·백제어·가라어는 주로 왕명이나 최고 관직명에 쓰였는데 신라어는 귀족명에도 쓰였고 심지어는 하위직에까지 쓰인 보편성을 보인다. 위 ‘막(ㄱ)리지’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며 ‘어지지’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이름이다. 그리고 ‘건길지’와 ‘개지’(<개즈)는 백제의 왕에 대한 존칭이다. 또한 신라 시조 ‘박알지거서한(朴闕智居西干)과 ‘세리지니사금(世里智尼師今)은 ‘지’가 어중에 끼어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존칭접미사 ‘지’는 후

대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비칭(卑稱)으로 격하되기 시작하였다. 현대국어의 사용 예를 들면 ‘거지/거러지, 이치, 그치, 저치, 양아치’ 등과 같은 것들이다. 드디어 이 ‘지’(>치)는 인칭접미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얼마치, 십원어치, 내일치, 속엿치, 골치’ 등과 같이 비인칭에까지 쓰임새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초기부터 고구려·백제·신라는 왕명을 짓는데 쓰인 소재가 동일하고 왕에 대한 존칭접미사가 동일하며 나아가서 관직명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 글은 고구려·신라·백제(삼국)의 언어를 비교 분석하여 동질성 여부를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민족과 언어 그리고 국가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기된 역사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언어사적 논증은 설득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5.1. 공교롭게도 고구려, 신라, 가라를 망라하여 천손하강신화가 먼저 발생한 뒤에 비로소 난생신화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적인 신화의 동질성은 삼국의 정체성이 동일함을 추정케 한다. 방위어가 ‘곰~고마(北)⇒뒤(後=北), 남~니마(南)⇒앞(前=南)’와 같이 전의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흔적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방위어에서 본래는 뒤후(後), 앞전(前), 고마북(北), 니마남(南)이었던 것인데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앞(前)이 南의 뜻으로, ‘뒤(後)가 北의 뜻으로 변화한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전진이동(前進移動)이 北⇒南의 방향이었음을 증언하는 바라 하겠다. 이와 같이 건국시조의 탄생신화와 민족이동을 지시하는 방향어가 삼국이 동질적이고 중국과는 이질적이다.

5.2. 지명의 특징이 한반도 삼국은 동질적인데 중국과는 이질적이다. 그리고 국명과 영토를 명실공히 이어받은 고구려의 후계국인 고려의 국호가 세계에 공포된 이후로 우리의 국호가 ‘코리아’(Korea=고려)로 정착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발해>후고구려>고려=Korea’와 같이 이어지는 적통성(嫡統性)이 고구려사는 한국사임에 틀림없음을 확증하여 준다.

5.3. 왕명의 특징도 삼국이 동질적이고 중국과는 이질적이다. 삼국의 왕명

은 ‘해빛’(日光)을 작명의 소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누리’(世), ‘비류’(沸流國, 沸流江에서 유래), 온조(온세상), ‘주몽(朱蒙)·활보(弓卜)’(명사수), ‘뱀보(蛇卜)’(뱀처럼 기어다님), ‘거칠부’(荒宗), ‘이사부’(昔宗) 등과 같이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기능과 행동 등을 소재로 작명한 공통점이 있다.

5.4. 관직명을 비롯한 기타 어휘의 특징도 삼국은 동질적인 면이 많은데 중국과는 이질적이다. 특히 왕에 대한 삼국의 존칭어가 동질적인데 깊은 뜻이 있다.

위의 언어적인 공통점은 결코 우연 일치가 아니다. 모름지기 그것은 근원적인 동질성으로 한(韓)민족이 나뉘어 세운 세 나라임을 입증하는 믿음직한 특징이다. 따라서 고구려사는 신라사·백제사와 함께 한국사에 속한다.

인용문헌

- 도수희, 백제어의 “東·西”에 하여여, 역사언어학, 김방한선생회갑기념논문집(전예원), 1985a.
- _____, 백제어의 “南·北”에 대하여, 國語學14 일석이희승선생구순기념호(국어학회), 1985b.
- _____, 백제전기의 언어에 관한 제문제, 한국문화 심포지움 -백제초기문화의 종합적검토- 진단학보 제60호(진단학회), 1985c.
- _____, 백제 전기어와 가라어의 관계, 한글 제187호(한글학회), 1985d.
- _____, 마한어 연구(Ⅰ), 언어 제8호(충남대 어학연구소), 1987.
- _____, 마한어 연구(Ⅱ), 논문집 제15권 제1호(충남대 임문과학연구소), 1988.
- _____, 변한진한어에 관한 연구(Ⅰ), 동양학 제20집(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0.
- _____, 마한어에 관한 연구(속), 東方學志 제80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 _____, 고대 한반도의 어휘분포와 그 특징, 국어국문학의 세계화(국어국문학회), 1994a.
- _____, 백제어(전기)와 고대 일본어의 관계(특강), 한일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집(일본 九州大學 언어문화부), 1994b.
- _____, ‘泉·交·宜’의 古釋에 대하여, 남풍현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5.

- _____, 지명속에 숨어 있는 옛 새김들, 진단학보 제82호(진단학회), 1996a.
- _____, 『삼국사기』의 고유어(赫居世와 居西干)에 관한 연구, 동양학 제26집(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6b.
- _____, ‘한(韓)의 두 뿌리를 찾아서, 진단학보 제88호(진단학회), 1999a.
- _____, 고대 국어의 음운 변화에 대하여, 한글 제244호(한글학회), 1999b.
- _____, 한국 성명의 생성 발달, 새국어생활 제9권 제4호 · 겨울(국립국어연구원), 1999c.
- _____, 존칭접미사의 생성 발달에 대하여, 제10권 제1호 · 봄(국립국어연구원), 2000.
- _____, 嶺東지역의 옛 지명에 대하여, 지명학 8(한국지명학회), 2002a.
- _____, 언어와 역사, 인문언어 2-1(국제언어인문학회), 2002b.
- _____, 국어사 연구와 지명자료, 제30회 국어학회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국어학회), 2003.
- _____, 『백제어 연구』(아세아문화사), 1977.
- _____, 『백제어 연구』(I'87),(II'89),(III'94),(IV2000)(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7.
- _____, 『한국의 지명』, 대우학술총서 553(아카넷), 2003.
- 도중만, 『劉師培對晚清史學演進的貢獻及影響』(박사논문, 북경대학), 1998.
- 박명채, 古代 三國의 地名語彙攷, 白山學報 제5호, 白山學會, 1968.
- 이기문,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제4호, 白山學會, 1968.
-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80.
- 한상인, 『조선 초기 이두의 국어학적 연구』(보고사), 1998.
-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 1910.
- _____, 日鮮古代地名의 研究, 月刊 2-2, 朝鮮總督府, 1912.
- 新村 出, 國語及朝鮮語의 數詞에 對하여, 文藝 7-2~4.(『言葉의 歷史』에 수록), 1916.
- Chin-W. Kim, The Indian-Korean connection revisited, Korean Linguistics Vol.3 ICKL, 1983.
- Soo-Hee To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Paekche Language and the Kara Language in Korea,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Vol.16, No.2, Fall University of Illinois, 1986.
- Mario Pei, Our Language, Revised Edition J,B, Lippincott Company New York, 1965.

[Abstract]

The History of Koguryo from the Perspective of its Language

Soo-Hee To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Koguryo historically belonged to Korea based on the linguistic homogeneity among Koguryo, Sinra, and Paekche. The language of Koguryo shows the following four distinct properties from Chinese.

First, Koguryo, Sinra, and Kara share a dual structure of national birth myths, and the directional vocabulary found in the countries also shows the evidence that the Korean people moved from North to South. Chinese, on the other hand, has no indication of these facts.

Second, the place names in Koguryo shared the same properties with those of the countries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period, but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e national name of Korea, adopted from the national name of Koruryo, was announced to the world and that Korea has been acknowledged as our national name since then. The legitimate lineage of Koguryo > Parhay > Hu-Koguryo > Korea proves that Koguryo belonged to Korea historically.

Third, the names of kings were very similar among the Three Kingdoms, but distinct from those of China. The names of kings were created on the basis of the sun as well as nature and human functions or activities like nuri (world), Piryu (originated from the name of a river), onjo (all over world), Chumong Hwar-bo (a person who is good at shooting), Paem-bo (a baby crawling like a snake), K?chir-bo, Isa-bo, etc. This is a common characteristic among the Three Kingdoms, but clearly different from China.

Fourth, the governmental names were very similar among the Three Kingdoms,

but distinct from Chinese ones.

These linguistic properties shared among the Koguryo, Paekche, and Sinra are never accidental, but provide reliable evidence that the countries were founded by the Korean people. Koguryo, therefore, belonged to Korea historically.

접 수 일 : 2004년 4월 9일

심사기간 : 2004년 5월 1일~20일

재 심 사 : 2004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4년 6월 5일(편집위원회)